http://dx.doi.org/10.15749/jts.2022.23.1.007

번역학연구
23권 1호
(2022. 3. 31)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따른 자막번역전략의 차이
– 영화 <기생충>의 한일·한영 자막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유 준 희
(이화여대)

1. 서론

본 연구는 고맥락 문화권 언어와 저맥락 문화권 언어의 자막번역에 나타나는 번역전략 차이를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번역전략이 각각의 언어권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자 한다. 분석 자료로서는 영화 <기생충>의 한일 및 한영 자막번역을 선정하였다.

영화 <기생충>은 반지하라는 공간에서부터 계급 차이, 입시 경쟁, 과외 수업, 학력·학벌주의, '일리노이 시카고' '미국제 텐트'와 같은 미국을 의식한 대사까지 다양한 한국적 맥락(김영훈 2021)이 담겨졌을 뿐 아니라 빈부의 격차라는 세계 공통의 주제를 그린 작품이다. 이런 요소가 담긴 이 작품은 2020년 2월 아카데미 작품상을 비롯하여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4개 부문을 휩쓸었고 92년의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다. 아카데미상에 앞서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하여 골든글로브상 시상식에 참석한 봉준호 감독은 "1인치도 안 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다"(KBS뉴스 20. 01. 07)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세

www.kci.go.kr

계 관객들이 봉준호가 말하는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은 결과인지 일본에서는 <내 머리속의 지우개> 이후 15년 만에 1위에 올랐고 북미권에서도 개봉된 한국영화 역대 1위를 기록하였다. 한국과는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들에서 <기생충>은 인기를 끌었다. 그렇다면 <기생충>을 본 일본이나 북미권 관객들이 뛰어넘은 장막의 장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었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본 연구는 출발하게 되었다.

영화에서는 음향과 영상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번역할 때 자막 텍스트와 영상 사이에 일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자막을 실제 화면상에 표시되어 있는 것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는 시공간 제한, 문자 수 제한, 정보량의 감소 등의 제약이 생긴다(Gottlieb 1992; Hatim and Mason 1997: 78-79). 또한 자막의 언어와 '화면의 섬세한 움직임이나 디테일'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며 대사의 감정이나 배우들 목소리의 상태를 살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작업이다(戸田[도다] 1997: 47, 49). 그런 까닭에 자막번역에서 '생략'(omission) 혹은 '삭제'(deletion)는 피할 수 없다(Diaz-Cintas and Remael 2007: 167). 게다가 자막번역에서 생략이나 삭제 현상들은 크게 문화적, 구조적, 어휘 자질 차이 측면에서 발생한다고 여겨져 왔다(박윤철 2008). 그렇다면 각 언어권의 자막에서는 무엇을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자막에서 제시하는가? 한국처럼 커뮤니케이션에서 전달하려는 정보가 그 '장(場)'에 있는 고맥락 문화에 속하는 일본과 대부분의 정보가 언어로 명확하게 코드화되는 저맥락 문화에 속하는 북미권(林[하야시] 2014)의 경우 화면상에 남는 정보 요소는 분명 다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영화 <기생충>의 일본어 자막과 영어 자막의 비교 분석을 통해 고맥락 문화권 언어와 저맥락 문화권 언어에서 소통할 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같은 원문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비교함으로써 특정 번역 문제에 대한 해결법이 다른(Schaffner and Herting 1992) 점을 살핀다. 최근 들어 자막번역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대부분 영한 자막번역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하나의 원천텍스트에서 두 가지 이상의 목표 언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비교분석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1].

1) 조성은(2014)을 바탕으로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21년에 국내 통번역학계 학술지에서 영상번역과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 총 146편 중 두 가지 이상의 목표언어로 번역된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는 5편에 불과하다.

www.kci.go.kr

위에서 기술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한국과 같은 고맥락 문화권 언어인 일본어 자막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2) 저맥락 문화권 언어인 영어 자막은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생략하는 문화와 명시하는 문화에 대한 정의를 정리한 후 기존의 자막번역에서의 전략 연구를 제시하겠다. 3장에서 분석 대상과 방법을 설명한 후 4장에서 분석결과를 기술하고 5장에서 결론을 제시하겠다.

2.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본 연구가 의거한 이론적 배경을 기술한다. 먼저 2.1장에서는 문화 차이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형식 차이로 나타나는지 선행연구를 통하여 개관하고 2.2장에서는 언어의 성격 차이에 따른 자막번역, 2.3장에서는 다양한 자막번역전략과 그 분류법에 대해 논하겠다.

2.1 문화 차이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형태

홀(Hall 1976)은 저서 *Culture Beyond*에서 세계 문화가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로 분류된다고 주장하였다. 홀(Hall 1976: 79)의 분류에 따르면 영어나 독일어와 같은 서양 언어는 정보 전달의 주된 경로가 언어 그 자체이지만 한국이나 일본과 같은 동양 언어는 문맥을 파악하는 역할을 다할 때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Yes'의 의미가 뚜렷한 것처럼 언어는 발화 의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때가 많지만 한국어나 일본어의 '예'는 문맥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저맥락 문화권 언어에서의 커뮤니케이션 형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정보'가 중요하다. 정확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상대방과 그 정보를 공

www.kci.go.kr

유할 수 없다. 즉 발화 의도의 전달은 발화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한편, 고맥락 문화권 언어의 커뮤니케이션은 기본적으로 상대방과 공유되었다는 데 '정보'가 있다. 화자는 정확한 정보를 상대방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커뮤니케이션의 수신자가 문맥적인 정보가 있다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발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藤本[후지모토] 2011).

홀(Hall 1976)의 분석은 문화권에 따라 언어의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한 스콜론과 스콜론(Scollon and Scollon 1995: 138)은 서로 말을 주고받을 때 1)정보를 전달하는 기능과 2)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부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어느 쪽을 중요시 하느냐는 문화에 따라 다르다고 지적하였다. 서양권 문화에서는 정보전달 기능이 중요시된다. 따라서 중요한 사항을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확하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이나 일본, 중국과 같은 동양 문화권에서는 관계성 유지 기능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리고 관계성이 이미 존재하는 문화적 전제로부터 정보 전달은 명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달성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야시(林 2014)도 위에서 논한 문화적 차이를 '조화의 문화'와 '차이의 문화'라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쳐낸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조화의 문화'를 중요시해왔으며 '장(場)의 윤리'가 중요시되는 반면 서양권에서는 '개인의 윤리'가 중요시된다는 차이가 있다[2]. 즉 일본 사회는 전형적인 고맥락 문화 사회이며 서로 호흡을 맞춰가는 의사소통 방식인 '장의 윤리'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특정 행동 양식이나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전통적으로 확립되어 있어 서로의 행동을 해석하거나 예상하기가 쉽다. 또 이러한 관계와 특징을 다른 관점으로 보면 '대화'와 '공화[3]'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야시(ibid.)는 말한다. 한 사람이 말을 하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듣는 대화 형식을 취하는 서양식과는 달리 공화는 생략하는 문화의 담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ibid.).

---

2) '장의 윤리'는 구체적인 규약이 논의되는 장에서 논의하는 것을 피하고 대체로 주지에 찬성한다. '개인의 윤리'는 언어적 규약으로 되돌아가서 분쟁을 처리하려고 한다. 따라서 애매한 기술은 피하려 한다(河合[가와이] 1995).

3) 화자 A가 발화한 도중에 청자 B가 그걸 받아서 공동작업으로 문맥을 주고받으며 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형식을 말한다(水谷[미즈타니] 1980: 30).

www.kci.go.kr

서양식의 언어정보 중시 커뮤니케이션 양식과 동양식 배경정보 중시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각각 그 언어 구조에 따른다는 증거가 있다. 이케가미(池上 1983)는 서양 언어는 언어화가 가능한 대상물에 주목한 구조를 갖는데 동양 언어는 언어화가 어려운 장에 주목한 구조를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영어와 일본어 문법 구조에 주목하여 영어는 사건보다 개체에 주목한 문법구조를 갖는 대신 일본어는 개체보다 사건에 주목하는 문법 구조를 갖는다. 문법상 영어는 주어가 꼭 필요하며 무생물도 주체를 갖는 듯한 표현이 가능한 데 비해 일본어에서 주어와 같은 개체는 생략되기 쉽다.

홀(Hall 1976), 스콜론과 스콜론(Scollon and Scollon 1995), 그리고 하야시(林 2014)의 이론적 분석을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특징

고맥락 문화	저맥락 문화
전통적인 장의 윤리	개인의 윤리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생략하는 문화)	언어로 전달한다 (명시하는 문화)
장의 공기, 표정이나 행간을 읽는다	토론으로 정한다
문맥 중시, 생략이 가능한 문화	발신형 커뮤니케이션
공주어, 주제중심언어	자기 주장, 주어중심언어
수신형 문화	발신형 문화
공화(함께 담론을 나눈다)	대화(화자와 청자)

위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맥락 문화와 저맥락 문화의 소통 방식이 다르다면 각 언어권의 번역가가 취하는 번역전략과 화면상에 제시되는 자막번역의 정보량에도 분명 차이가 있을 것이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의 메시지를 언어로 명시해야 하는 서양권 언어와 주제 중심 언어인 일본어 같은 경우, 생략되는 요소와 꼭 제시되어야 할 요소가 분명 달라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겠다.

국내에서는 위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둔 연구로는 뉴스 기사나 문학 작품의 한영 번역을 분석 대상으로 한 것들이 있다. 홍정민(2013)은 고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특징이 나타나는 한국어 기사가 영어 기사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어권 특유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반영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www.kci.go.kr

이강선(2016)은 한강 <채식주의자>가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으로 번역이 되면서 한국 고유의 집단 문화가 서양 특유의 개인 문화로 새롭게 해석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안미영(2018) 역시 같은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문화간 차이에 따른 명시화 전략에 주목하여 어휘와 화용적 층위에서 등가가 성립되는지를 분석하였다.

2.2 자막번역

영상번역은 다문화·다언어 환경에서 소통이나 대화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Diaz-Cintas 2013). 영상번역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Gambier 2003), 그 중에서도 자막은 가장 빠르고 저렴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Diaz-Cintas 2013).

자막번역을 고틀리브(Gottlieb 2004: 86)는 영상매체에서 목표언어와 다른 언어로 제시되는 음성 메시지를 번역하여 1-2줄의 글이라는 형태로 오리지널 음성과 일치시켜 화면상에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또 디아즈-신타스와 르마엘(Diaz-Cintas and Remael 2007: 8-9)은 자막은 일반적으로 화자의 대화나 화면에 나타나는 언어적 요소, 배경음악에 포함되는 정보를 재현하여 화면 하단에 제시하는 텍스트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두 정의는 자막번역이 음성언어에서 서기언어로 변환되는 것, 자막에는 오리지널 음성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코드의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며 음성, 음향, 영상에 드러나는 원천텍스트가 유지된 상태로 제시된다고 한다. 고틀리브(Gottlieb 1994)는 원천텍스트를 유지하는 자막번역의 특성이 자막과 원천텍스트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청자가 자막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아즈-신타스와 르마엘(Diaz-Cintas and Remael 2007: 57)도 자막은 시공간 제약을 존중해야 할 뿐 아니라 원천언어를 조금이라도 아는 시청자의 엄격한 음미를 견뎌내야 하는 '취약한 입장의 자막'이라고 한다.

영어 자막의 행당 글자 수는 구두점을 포함하여 37자까지 들어갈 수 있으며 행의 수는 최대 2줄까지(ベイカー & サルダーニャ編, 藤濤監訳[베이커와 살다나 편, 후지나미 감수] 2013), 장면당 표시 시간은 5-6초이다(篠原[시노하라] 2012). 한편 일본어 영상 번역가들은 일반적으로 1초당 읽을 수 있는 글자

www.kci.go.kr

수를 4자, 행당 글자 수는 13자까지이며 행의 수는 영어 자막과 동일하게 한 번에 최대 2줄까지를 실천하고 있다(染谷[소메야] 2009). 그리고 구두점을 사용하는 대신 반각 혹은 전각 공백을 넣고 일본어 가나와 한자를 균형 있게 상용하는 등 궁리한다(鳥飼編著[도리카이 편저] 2013: 83). 따라서 시청자가 화면상의 자막을 읽고 이해하는데 주어지는 시간은 매우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막은 문법이나 어역 뿐 아니라 대화의 상호작용이나 다른 특징들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인 스타일을 개발하였다. 즉 영화의 음성과 영상이 자막에 '제약'을 주는 것은 영어나 일본어나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3 자막번역전략

번역전략이라는 용어에 관한 정의나 사용 구별 방법 등은 연구자마다 다르며 아직까지는 '용어적인 혼란 상태(terminological mess)' (Pym 2011: 92)에 빠져있다. 거시적으로 텍스트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방법을 가리킬 때도 있는 반면 미시적으로 번역 과정에서 개별적인 번역에 대한 방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될 때도 있다(篠原[시노하라] 2013). 가와하라(河原 2014)는 광의의 개념으로 '번역하는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번역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인 일련의 규칙 혹은 원칙'과 협의의 개념으로 '번역 대상 텍스트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 문제나 번역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특정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전략이나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이를 실무 레벨에 대치시키면 번역에 관한 전체적인 방침이나 방책, 자세를 '거시적인 전략', 그리고 번역 작업을 수행 시 생기는 개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상세한 방법을 '미시적인 전략'이라고 부른다(河原[가와하라] ibid.). 번역전략이 단순히 개별적인 번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번역 기법에 그치지 않고 보다 거시적인 관점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戸軽[도가루] 2019).

실무 수준의 대표적인 자막번역전략 연구로서 먼저 덴마크의 자막번역 연구자인 고틀리브(Gottlieb 1992)가 제시한 자막번역전략을 들 수 있다. 고틀리브(ibid.)는 자막번역에서 미디어 고유의 엄격한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감안하여 10가지 번역전략[4] (1)확장(expansion), (2)바꾸어 말하기(paraphrase), (3)전이

4) 한국어 번역은 박윤철(2020)을 참조함.

www.kci.go.kr

(transfer), (4)모방(imitation), (5)전사(transcription) (6)전위(dislocation), (7)압축(condensation), (8)전체 감소(decimation). (9)삭제(deletion) (10)포기(resignation)을 제안하였다.

롬하임(Lomheim 1999)은 자막번역과 일반번역을 구별하려는 고틀리브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고틀리브가 제시한 전략으로는 분석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며 계통적인 데이터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한다. 먼저 등가번역을 거시적인 전략 틀로 삼는 6가지 전략 (1)생략(omission), (2)압축(compression), (3)확장(expantion), (4)일반화(generalization), (5)명시화(specification), (6)중립화(neutralization)는 자막번역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한다.

디아즈-신타스와 르마엘(Diaz-Cintas and Remael 2007)의 자막번역전략은 다소 고틀리브의 전략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자막을 입히는데 사용되는 전략이다. 이들이 제안한 9가지 전략은 (1)차용(loan), (2)모사 또는 축어역(calque or literal translation), (3)명시화(explicitation), (4)대체(substitution), (5)전위(transposition), (6)어휘 재생산(Lexical re-creation), (7)보상(compensation), (8)생략(omission), (9)부가(addition)이다. 하지만 번역전략과 기법의 경계가 모호하고 문체 기법을 활용한 번역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박윤철 2020).

이노와 가와하라(稲生·河原 2010)는 고틀리브(1992)를 답습하며 뉴스 자막번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영어 원문과 일본어 자막번역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전략을 제안한다.

이노·가와하라(稲生·河原 2010) 뉴스 자막번역전략

(1) 명제유지번역(命題保持譯): 원문과 자막번역을 단위마다 비교하여 명제가 그대로 요지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한다
(2) 삭제(削除): 원문에는 있는데 자막에 없는 부분을 특정한다
(3) 바꾸어 말하기(言い換え): 원문이 도착언어에서 다른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한다
(4) 보충(補足): 원문에는 없고 번역문에서만 나타나는 보충적인 표현을 특정한다

www.kci.go.kr

또 이 네 가지 전략을 채택할 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를 세 가지 제시한다. (1)번역자가 ST를 TT로 옮기는 언어적 측면, (2)해당되는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번역한 결과 번역자가 원문의 뜻을 목표문화권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적 측면, 그리고 (3)목표문화권 독자가 놓인 사회·문화적 측면을 배려한 번역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는 사회·문화적 측면이다. 번역전략 배경에 있는 세 가지 측면을 판별하고 번역자가 선택한 번역전략을 분석하면 번역전략 사용의 실태가 분명해진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전략 중 이노와 가와하라(稲生·河原 2010)의 번역전략을 사용하겠다. 이 전략은 뉴스자막을 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전략이지만 문자 분석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텍스트 분석의 비중이 큰 본 연구 분석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논한다. 3.1장에서는 분석 대상인 영화 <기생충>의 선정 이유를 설명하고 3.2장에서는 2.3장에서 소개한 자막번역전략 중 이노와 가와하라(稲生·河原 2010)의 뉴스 자막번역전략을 분석틀로 삼아 텍스트 분석방법을 제시하려 한다.

3.1 분석 텍스트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영화는 2019년에 국내에서 개봉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다. 2020년 2월 9일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오스카상을 비롯한 4개 부문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반지하 아파트에 사는 청년 김기우의 가족이 IT기업 사장 박동익의 가족이 사는 고급 주택가에 서서히 '기생'하는 과정 및 그들의 말로를 그리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 기자 스코트(Scott 2019)는 "이 영화만큼 전세계 상황에 대해 나를 슬프게 만들면서도 기쁘게 만든 영화는 없다"고 평가하였다. 또 일본 영화 평론가 우다가와(宇多川 2020)는 "만화같은 구상력과 영화같은 현실감을 이끌어 내는 연출

www.kci.go.kr

력. 단점이 없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두 문화권에서 인기를 얻은 만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기에 적절한 작품이라고 판단하였다.

영화의 대사 및 일본어와 영어 자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Subadub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넷플릭스에서 한국어 대사 및 영어 자막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기생충> DVD에 수록된 영어 자막을 보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분이 있으면 DVD에 입혀진 자막으로 수정하였다. 일본어 자막 데이터의 경우 VSRip, Subresync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추출하였다. 편의상 추출한 데이터는 아래 <그림 1>처럼 엑셀로 정리하여 원문은 ST_KOR, 일본어 자막은 TT_JPN, 그리고 영어 자막은 TT_ENG로 표기하였다.

〈그림 1〉 영화 〈기생충〉 자막 정리

	화자	ST_KOR	No.	TT_JPN	No.	TT_ENG
00:01:28,296 --> 00:01:29,714	(기우)	아, 망했다, 이거	1	まずい　もうタダで	1	We're screwed.
		공짜 와이파이 못 쓴다, 이제		Wi-Fiは使えない	2	No more free Wi-Fi.
00:01:32,300 --> 00:01:34,427		쓥, 아, 기정아	2	ギジョン	3	Hey, Ki-jung!
00:01:34,511 --> 00:01:35,428	(기정)	어		⌀	4	Yeah?
00:01:35,512 --> 00:01:39,682	(기우)	아, 윗집 아줌마네 iptime	3	上の階のおばさんが	5	The lady upstairs
		암호를 거셨다, 드디어		パスワードを設定した		put a password on 'iptime'.
00:01:39,766 --> 00:01:41,476	(기정)	아, 암호	4	パスワード？	6	A password?
00:01:41,559 --> 00:01:43,019		1에서 9까지 눌러 봤어?		1から9まで押した？	7	Did you try 123456789?
00:01:43,102 --> 00:01:44,187	(기우)	어, 안 돼	5	ダメだ	8	No luck.
00:01:44,270 --> 00:01:45,939	(기정)	반대 순서로도 해 봐	6	9から1も	9	Do it the other way.
00:01:46,022 --> 00:01:47,232	(기우)	아, 안 된다니까	7	つながらない	10	I tried that too!
00:01:47,732 --> 00:01:51,694	(충숙)	아이씨, 뭐야, 그럼	8	クソ　メールも	11	Fuck, then we can't get WhatsApp?
		그, 문자고 카톡이고 다 안 되는 거야?		カカオトークも使えない？		
00:01:51,778 --> 00:01:52,654	(기우)	그렇지	9	ああ	12	Nothing.
00:01:53,571 --> 00:01:54,864	(충숙)	야, 김기택	10	あんた　キム・ギテク	13	Hey, Kim Ki-taek.
		이, 씨발, 자는 척하지 말고	11	タヌキ寝入りしないでよ	14	Don't fucking pretend to sleep.
		어떻게 생각하세?		どう思う？		What do you think?
		핸드폰도 다 끊기고	12	スマホもつながらない	15	Our phones are shut off.
		와이파이도 다 끊기고, 응?	13	Wi-Fiもつながらない		Now, even our Wi-Fi is shut off.
00:02:02,831 --> 00:02:05,834		씨발, 계획이 뭐야, 응?		計画はあるの？	16	What's your plan?
00:02:06,751 --> 00:02:09,628	(기택)	기우야	14	ギウ	17	Ki-woo.
	(기우)	예, 아버지		父さん		Yes, Dad?
00:02:12,340 --> 00:02:13,550	(기택)	와이파이 높게 들어야 돼, 높게	15	高く上げれば電波が入る	18	For Wi-Fi, hold it high.
00:02:13,633 --> 00:02:16,886		구석구석, 그, 살살이...	16	隅々まで	19	Stick it in every corner and so on.
				細かく動かして探すんだ		
00:02:26,271 --> 00:02:27,272		아씨	17	チクショウ	20	Damn stink bugs.
00:02:28,565 --> 00:02:29,983		꼽등이, 이...	18	便所コウロギだ		

정리한 결과 TT_JPN 수는 1697, TT_ENG 수는 1659로 나타났다. 장면 수만 비교하였을 때 TT_ENG가 38장면 적지만 다음 <표 2>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TT_JPN에서는 인물들이 주고받는 대화가 두 장면으로 나뉘어서 삽입된 반면 TT_ENG에서는 한 장면에 삽입되었다.

www.kci.go.kr

〈표 2〉 영화 〈기생충〉 자막 삽입 예시(01:13: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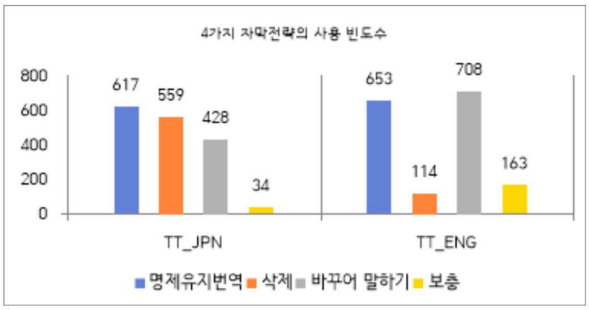
화자	ST_KOR	No.	TT_JPN	No.	TT_ENG
문광	남편	1133	亭主(남편)	1133	Husband?
기택	남편	1134	亭主(남편)	1134	Husband
문광	와이프	1135	ワイフ(와이프)	1135	-Wife?
충숙	예	1136	はい(예)		-Yes.
문광	아들	1137	息子(아들)	1136	-Son?
기우	예	1138	はい(예)		-Yes.
문광	딸	1139	娘(딸)	1137	-Daughter?
기정	딸	1140	娘(딸)		-Daughter.

조금 대사가 긴 경우 두 장면으로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TT_JPN와 TT_ENG가 꼭 같은 부분에서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정리하여 1638장면으로 각 자막 수를 정리하여 분석 대상 자료로 사용하였다.

3.2 분석방법

TT_JPN과 TT_ENG가 각각 고맥락 및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형태를 따르고 있는지 살피기에 앞서 크게 어떤 번역전략을 채택하고 있는지 2.3장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노와 가와하라(稲生·河原 2010)의 네 가지 전략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4가지 자막전략의 사용 빈도수



총 1638장면 중 TT_JPN에서 명제유지번역(617개, 38%), 삭제(559장면, 34%), 바꾸어 말하기(428장면, 26%), 보충(34장면, 2%) 순으로 전략이 사용되

www.kci.go.kr

었다. 한편 TT_ENG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전략은 TT_JPN과 달리 바꾸어 말하기(428장면, 43%)였으며, 이어서 명제유지번역(653장면, 40%), 보충(163장면, 10%), 삭제(114장면, 6.9%) 순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TT_JPN에서는 삭제 전략이 TT_ENG보다 많이 채택이 된 반면 TT_ENG에서는 바꾸어 말하기 전략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명제유지번역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이 사용된 TT_JPN과 TT_ENG를 비교분석하여 어떤 형식으로 고맥락 및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형태가 각 자막에 드러나는지 살펴보았다.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3.2장에서 제시한 분석방법에 따라 TT_JPN과 TT_ENG에서 커뮤니케이션 형태의 차이가 언어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 세 가지 특징, 1)주어와 목적어, 2)술어, 3)독립어로 정리할 수 있었다. 각각의 사례 분석을 제시하겠다.

4.1 주어와 목적어

4.1.1 주제중심언어와 주어중심언어

두 가지 다른 번역자막에서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공주어 문장을 허용한 자막과 그들을 생략하지 못한 문장 형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 <표 4>는 기우가 처음 다혜 네로 과외 선생으로 갔다가 수업 후 연교와 아들 다송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인디언’ 마니아인 다송이가 활을 쏘면서 거실로 나타난다.

www.kci.go.kr

〈표 4〉 대사 예시 1(00:18:24)

화자	ST_KOR	TT_JPN	TT_ENG
연교	다송아, 여기 인사드려, 케빈 선생님	ダソン　ご挨拶して ケビン先生よ (다송 인사드려 케빈 선생님이셔)	Dasong, come say hi!
	아, 이게 인디언 화살이에요 심지어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한 거야	∅ インディアンの矢 ∅ アメリカのサイトで買ったの (인디언의 화살 미국의 사이트에서 샀어)	This is an Indian arrow. I ordered it from the US.
	재가 작년부터 완전 인디언 오타쿠가 돼 가지고	∅ 去年から インディアンのおたくで (작년부터 인디언 오타쿠여서)	Since last year, he's been an Indian fanatic.
기우	인디언?	インディアン？	Indian?
	애가 근데 마니아 기질 좀 있는가 봐요?	∅　マニア気質なんですね (마니아 기질이군요)	He's got a fanboy personality?
연교	아니, 참 애가 워낙 엉뚱하고　산만한데다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거든	まったく(참)	Well, he's eccentric and easily distracted.
		∅ 落ち着きがないし じっとしていられなくて (차분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서)	He can barely sit still!
	그래서 작년에 컵 스카우트에 가입을 시켰어요	∅節度と精神統一のために 去年 カブスカウトに ∅ (절도와 정신 통일을 위해 작년 컵스커우트에)	So last year, I enrolled him in Cub Scouts,
	뭔가 좀 절도 있고 집중하는 그런 걸 좀 배우라고		hoping he'd learn moderation and focus.

먼저 다송이가 쏜 활에 대한 설명을 연교가 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다송이가 인디언 놀이에 빠지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전개된다. 형식주어를 포함한 주어가 TT_JPN에서는 대부분 생략되어서 딱 한 번 나오는 반면 TT_ENG에서는 출발텍스트에서 생략된 주어가 명시화되었다. TT_JPN은 연교의 인디언 화살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지시대명사와 주격조사가 생략되었는데 TT_ENG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 또 화살을 미국에서 구입했다는 대사는 ST_KOR에

www.kci.go.kr

서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가 TT_JPN에서도 생략된 채 번역이 되었는데 TT_ENG에서는 'I'와 'it'이 들어갔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영어는 많은 경우 타동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어와 목적어가 따르는데 한국어나 일본어의 경우 자동사의 활용으로 인해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어서 다송이의 마니아 기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TT_ENG을 보면 누가 인디언 마니아고, 누가 엉뚱해서 컵스카우트에 가입했는지 주어가 명기되어 있어 알기 쉬운 반면 TT_JPN은 자막만 보았을 때 금방 알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영상과 함께 자막을 보면 시청자는 다송이가 인디언 의상을 입고 있다는 것과 컵스카우트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5>는 동익과 기택이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의 대사이다. 기우네 가족이 한 명씩 동익의 집에 취업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기택의 아내 충숙이를 영입시키기 위해 기회를 만든다.

〈표 5〉 대사 예시 2(00:49:07)

화자	ST_KOR	TT_JPN	TT_ENG
동익	근데 김 기사님은 어떻게 알게 된 거지, 이 업체를?	∅ なぜ ∅ この業者を？ (왜 이 업체를?)	Then how did you find out about this company?
기택	저한테도 연락이 왔었죠. 저도 베테랑급 기사다 보니까.	∅ 連絡がきたんです 私もベテラン運転手なので (연락이 왔어요. 저도 베테랑 운전수여서.)	They contacted me as a veteran-grade driver.
	뭐, 일종의 스카우트 제의?	一種のスカウト？ (일종의 스카우트?)	You might say they scouted me?

동익이 기택에게 어떻게 업체를 알게 되었냐고 묻는 장면에서 '김 기사님'이라는 주어가 TT_JPN에서 생략이 되었고 바로 다음 기택의 대사에서도 '저'라는 주어가 빠졌다. 둘만 있는 장소에서 주어를 살리지 않아도 동익이 기택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주어인 '김 기사님'을 생략해도 관객은 알아차릴 수 있다.

TT_ENG의 경우 동익의 대사에서 '김 기사님'이라는 주어가 대명사인

www.kci.go.kr

‘you’로 대체 되었지만 주어는 유지되었다. 또 기택의 대사를 보면 ST_KOR과 TT_JPN에서 생략이 된 주어인 ‘업체’가 대명사이지만 ‘they’로, 그리고 기택을 가리키는 ‘me’의 목적어를 살려서 번역되었다.

예시 1과 2에서 알 수 있듯이 주제중심언어인 일본어 자막에서는 주어가 생략이 되는 경향이 강하고 주어중심언어인 영어 자막에서는 원문에서 생략된 주어와 목적어를 살리면서 번역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표 6>은 다송이의 깜짝 파티를 준비하는 연교에게 다혜가 기우를 초대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장면이다.

〈표 6〉 대사 예시 3(01:41:59)

화자	ST_KOR	TT_JPN	TT_ENG
다혜	생일 번개 케빈 쌤 한테도 연락해볼까, 오시라고?	∅ ケビン先生にも 来てもらおうか？ (케빈 선생님도 와달라고 할까?)	For the party, should we invite Kevin, too?
연교	어 ‘why not?’ 네가 연락해 볼래?	ええ ホワイ・ノット？ ∅ 連絡する？ (응, ‘why not?’ 연락해?)	Great idea! *Why not?* Will you call him?

예시 3에서도 주어와 목적어의 생략과 유지의 차이를 볼 수 있다. 다혜 대사에서 나오는 ‘생일 번개’라는 단어가 TT_ENG에서는 ‘the party’로 번역이 되었지만 TT_JPN에서는 생략이 되었다. 연교가 생일 파티에 기정이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초대하겠다는 장면이 바로 전에 나오기도 하고 생일 파티를 준비하는 장면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TT_JPN에서는 생략이 가능한 것이다.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교 대사의 자막을 보면 다혜를 가리키는 ‘네’가 TT_JPN에서는 생략이 되고 TT_ENG에서는 유지가 된다. TT_JPN의 자막만 얼핏 보면 기우에게 연락하게 될 사람이 누가 될지 알아차리기 힘들다. 하지만 엄마와 대화를 나눈 직후 다혜가 기우에게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나온다. 예시 1, 2와 마찬가지로 예시 3에서도 TT_ENG은 주어중심언어 특징인 주어-동사-목적어 순의 구문이, TT_JPN은 주제중심언어 특징인 주제와 화제를 중심으로 한 구문 특징이 자막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www.kci.go.kr

4.1.2 수신형문화와 발신형문화

고맥락 및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차이인 수신형문화와 발신형문화도 주어의 생략과 삽입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 <표 7>은 극중에서 기택이 연교에게 한국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율 1위라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라고 하는 대사이다.

〈표 7〉 대사 예시 4(00:42:30)

화자	ST_KOR	TT_JPN	TT_ENG
기택	근데 검색해 보세요	∅ 検索してください (검색해 보세요)	But I saw it on the internet.

ST_KOR에서 이를 검색하게 되는 주체는 연교이다. TT_JPN에서도 동일하게 번역이 되었다. 그런데 TT_ENG에서는 이 주체가 기택으로 바뀌었다. 기택은 한국이 결핵 발생율 1위라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보았다고 연교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다음 <표 8>도 비슷한 맥락에서 번역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면은 기택이 문광의 결핵 문제를 연교가 동익에게 전할 때 자기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연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다.

〈표 8〉 대사 예시 5(00:45:15)

화자	ST_KOR	TT_JPN	TT_ENG
기택	전 단지 공중 보건 또는 보건 위생의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린 건데	∅ ただ公衆保健 または保健衛生の観点から仕方なく (단지 공중 보건 또는 보건 위생의 관점에서 어쩔 수 없이) お伝えしましたが (말씀드렸는데)	I felt I had to speak up for the sake of public health and hygiene.
	그게 자칫 오해를 하면은 제가 고자질이나 하는 그런…	∅ 誤解されたら (오해받으면) ∅ 告げ口だと・・・ (고자질이라고...)	But this could be seen as snitching or...

www.kci.go.kr

연교	아유 그건 걱정 마세요	心配いりません (걱정 마세요)	Don't you worry.

<표 7>과 달리 ST_KOR 대사에는 주어가 있지만 수신자에게 책임을 묻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5]. 기택의 말을 알아들은 연교는 기택에 대한 이야기는 남편에게 꺼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다. 이때 기택의 대사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린 건데"가 TT_ENG에서 "I had to speak up"로 번역이 됨으로써 수신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말하는 발신형으로 바뀌었다.

4.2 술어

4.2.1 중도종료형[6] 발화와 종료형 발화

본 절에서는 애매한 표현과 직접적인 표현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동사술어에 초점을 두고 자막을 살폈다.

다음 <표 9>는 기정이가 다송이와 첫 수업을 하는데 참관을 하지 못하여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는 연교에게 가정부인 문광이가 매실청을 권하는 장면이다.

〈표 9〉 대사 예시 6(00:25:44)

화자	ST_KOR	TT_JPN	TT_ENG
문광	사모님?	奥様(사모님)	Madame?
	매실청 좀 드실래요?	梅シロップを∅？ (매실청을?)	Want some plum extract?
연교	예?	何？(뭐?)	What?

5) 버그런드(バークランド 2004)는 고맥락 문화를 '수신자 책임형 문화', 저맥락 문화를 '발신자 책임형 문화'라고 부른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의중을 헤아리는 것'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수신자가 주변 상황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언어 '언어중심적 커뮤니케이션'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발신자가 명확히 표현할 것이 요구된다고 본다.

6) 술부가 생략된 경우나 종속절만 있고 주절이 생략되는 발화, 즉 끝까지 말을 완결시키지 않는 발화를 가리킨다(宇佐美[우사미] 1995).

www.kci.go.kr

문광	꿀까지 풀어 가지고 긴장 확 풀리게	緊張がほぐれるように (긴장이 풀리게)	It's mixed with honey.
		ハチミツも∅(꿀도)	To ease your tension.
연교	예, 너무 좋아요.	それは いいわね (그거 좋네요)	Yeah, that would be great.
	저기요	ねえ(저기)	Hey.
문광	예?	∅	Yes?
연교	이렇게 하면 되겠다	∅	I've got an idea.
	매실청 두 개 타서 다송이 방으로 갖고 올라가세요	梅シロップを2杯 持って ダソンの部屋に∅ (매실청 2잔 가지고 다송이 방으로)	Take two glasses of plum extract to Dasong's room

이 장면 TT_JPN을 보면 세 군데에서 동사술어 생략을 볼 수 있다. 문광이가 매실청을 권하는 장면에서 원문에 있는 '드시겠냐'가 생략이 되었기 때문에 자막만 보면 매실청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추측하거나 혹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이어지는 연교의 대사에서는 매실청 두 잔을 다송이 방으로 가지고 올라가라는 동사술어가 일본어 자막에서는 생략이 되었다. 일본어 자막에서는 술어가 생략되어 조사에서 문장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조사를 단서로 생략된 술어가 나타내는 행위를 시청자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든다(尹[윤] 2021).

다음 <표 10>은 수업을 끝낸 기정이가 연교와 함께 다송이가 그린 그림에 대해 설명을 하는 장면이다.

〈표 10〉 대사 예시 7(00:26:34)

화자	ST_KOR	TT_JPN	TT_ENG
기정	어머니	お母様(어머니)	Madame.
	제 옆에 와서 앉아 보세요.	∅ 隣にお座りください (옆에 앉아보세요)	Come sit next to me.
	다송이는 올라가 있어.	ダソンは部屋に∅ (다송이는 방으로)	Da-song, go upstairs.
연교	빨리 올라가	早く行って(빨리 가)	Hurry up!
기정	다송이가 좀 전에 그린 건데요	さっきダソンが∅ (아까 다송이가)	Da-song just painted this.
연교	아, 네	ええ(예)	I see.

www.kci.go.kr

기정	저 어머니랑 둘이서만 얘기 나누고 싶은데	お母様と2人だけで ∅ (어머니랑 둘이서만)	I'd rather speak with Madame alone.
연교	아, 저기, 이분은 우리…	この方は…(이 분은)	Oh, but she is--
기정	아니요, 자리 좀 비켜 줘요	いいえ(아니요) 外してください (비켜 줘요)	No, leave us.

예시 5의 TT_JPN에서도 술어 생략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장면이 나오기 전에 시청자는 다송이가 몇 번 2층과 거실 사이의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다송이 방이 2층에 있다는 정보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송이는 방으로"라는 자막만 봐도 방으로 '올라가 있어'라는 술어는 추측이 가능할 것이다. 또 기정이는 연교에게 다송이가 그린 그림이라고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TT_JPN에서는 '그렸다'는 술어를 생략했다. 기정이가 문광이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는 대사에서는 원문도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대사이지만 TT_JPN에서 술어를 생략함으로써 더 함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영어의 경우 구문에서 주어나 동사가 생략될 때는 그것이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저맥락문화권 언어의 경우 언어에 대해 높은 가치와 적극적인 자세가 반영되기 때문에 TT_JPN와 같은 생략은 생각하기가 어렵다.

4.2.2 공화와 대화

술어를 생략함으로써 화자와 청자가 함께 문장을 이어나가는 공화 형식과 청자가 화자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발언하는 대화 형식의 자막번역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 <표 11>은 기우네 가족이 모두 주인이 없는 동익 집 거실에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다. 이때 기정이가 아르바이트로 남의 결혼식에 대역으로 참가한 이야기를 기우가 꺼낸다.

www.kci.go.kr

〈표 11〉 대사 예시 8(00:58:34)

화자	ST_KOR	TT_JPN	TT_ENG
기우	얘도 작년에 결혼식 하객 알바 졸라 많이 뛰었잖아	去年 ギジョンもバイトで結婚式の招待客の役を何件も∅ (작년 기정이도 바이트로 결혼식 초대객 역할을 몇 건이나)	Look at her. She got so many jobs acting in weddings last year.
기정	나는 생판 모르는 년 부케까지 받았어	∅知らない女のブーケも受け取った (모르는 여자의 부케도 받았어)	I even caught the bouquet from a bitch I had never met

TT_JPN의 기우 대사는 술어를 생략하였다. 문자 수 제약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공화 형식을 띠고 있다. 술어가 생략되어도 한 문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공동작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문장으로서는 '기정이도 작년에 아르바이트로 몇 번이나 대역으로 나갔다가 모르는 여자의 부케를 받았다'고 정리할 수 있다. 한편 TT_ENG는 화자와 청자가 각각 자신의 발언을 스스로 완성시키는 문장이다.

4.3 독립어

4.3.1 대답하는 말, 맞장구

또한 <기생충>에는 두 명의 등장인물이 말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짧은 맞장구를 치는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을 취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을 한다. TT_JPN에서는 번역가의 판단하에 맞장구는 자막에서 생략하고 실질적 발화[7]는 번역하려는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영상을 보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판단에 생략의 전력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보인다. 그 반면 TT_ENG에서는 실질적인 대화건 형식적인 대화건 번역되어 자막에 삽입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7) 담화에서 청자의 발화는 크게 맞장구적인 발화(형식적인 발화)와 실질적인 발화로 나뉘어진다(杉戸[스기토] 1987: 88).

www.kci.go.kr

〈표 12〉 대사 예시 10(00:34:34)

화자	ST_KOR	TT_JPN	TT_ENG
동익	근데 이게 뭐 경찰에 신고할 일도 아니고, 그렇지?	通報するまでもない (신고할 정도는 아니야)	But no need to call the police.
연교	어유, 그럼	もちろん (물론)	Not that!
동익	그렇다고 바쁜 내가 그놈 마주보고 자네 왜 내 차에서 떡을 치나? 그렇게 따지는 것도 좀 웃기고	かといって “ヤったのか?” と (그렇다고 “했냐?”고)	Still, for a busy man like me to ask, Why are you fucking in my car?
		忙しい僕が聞くのも変だ (바쁜 내가 묻는 것도 이상하다)	
연교	그럼 웃기지	それは変よ (그건 이상해요)	-That’d be ridiculous. -Yes, exactly.
동익	그렇지?	∅	
	그래서 말인데	そこでだが (그래서 말인데)	So instead...

<표 12>은 동익의 운전기사인 윤기사를 해고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동익이 윤기사를 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말을 거는 대사는 어떻게 보면 연교에게 신고할 정도이냐 아니냐를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연교의 대사를 자막에서 생략하기는 어렵다. 반면 동익이 윤기사에게 떡을 쳤냐고 묻는 것은 이상하다고 한 연교의 말에 맞장구를 치는 동익의 대사는 반복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하다. 그래서 TT_JPN에서는 자막을 생략하였지만 TT_ENG에서는 실질적인 대화 형식으로 번역하여 자막에 삽입하였다.

〈표 13〉 대사 예시 11(01:33:27)

화자	ST_KOR	TT_JPN	TT_ENG
기정	아까 어떻게 됐어?	あれは (저거)	How did it turn out back there?
		どうなった? (어떻게 됐어?)	
기택	뭐가?	何が? (뭐가?)	What?
기정	지하의 사람들	地下の2人 (지하의 2사람)	The peaople in the basement.

www.kci.go.kr

기택	뭐…꽁꽁 묶어 놨지	ひとまず(일단) ぐるぐる巻きにしといた (꽁꽁 묶어 놓긴 했어)	Well, I tied them up.
기정	이제 어떻게 할 거야?	どうするの？ (어떻게 할 거야?)	What will we do now?
기택	어?	∅	Huh?

<표 13>은 기택, 기우, 그리고 기정이가 동익의 집에 숨어있다가 도망치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다. 기정이가 지하에 있는 두 사람, 즉 문광이와 근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는데 “아까 어떻게 됐어?”라는 질문은 매우 추상적이며 기정이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택이 구체적인 질문을 받기 위해 “뭐가?”라고 되묻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대답은 생략할 수가 없다. 그 반면 기정이의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에 기택은 “어?” 하고만 대답을 한다. 이 부분 역시 <표 10>처럼 TT_JPN과 TT_ENG는 각각 생략과 유지하는 번역전략을 택한다.

4.3.2 감탄사

<기생충> 대사 중에는 많은 감탄사를 들을 수 있다. 영상을 보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감탄사 또한 번역자에게는 번역을 해야 할 것인가 생략할 것인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래 예시 12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던 문광이 때문에 그동안 먹지 못하였던 복숭아를 오랜만에 보고 좋아하는 다혜의 대사이다.

〈표 14〉 대사 예시 12(00:50:36)

화자	ST_KOR	TT_JPN	TT_ENG
다혜	와, 복숭아다	∅ 桃だ(복숭아다)	Wow, peaches!

다음 예시 13은 다송이 생일 기념으로 캠핑을 가기 위해 연교가 충숙이에게 빔 프로젝터를 챙겨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에서의 대사이다.

www.kci.go.kr

〈표 15〉 대사 예시 13(00:54:34)

화자	ST_KOR	TT_JPN	TT_ENG
연교	아 맞다. 그 빔 프로젝터 아시죠?	∅ ビームプロジェクター∅ (빔 프로젝터)	Oh, right. You know the beam projector?

위와 같은 감탄사는 자막의 시공간적 제약이라는 특성상 생략되기도 하지만 번역하지 않아도 등장인물들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점에서 번역자가 일부러 번역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감탄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말에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문자로 정보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상대방의 표정과 목소리 톤으로 분위기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일부 사례들을 통해 <기생충>의 일본어와 영어 자막에는 커뮤니케이션 형식에 따른 자막번역을 볼 수가 있다. 일본어는 영어보다 비교적 한국어와 언어의 거리가 가깝지만 그렇다고 명제유지번역 전략이 많이 사용되지 않았으며 언어의 구문 특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형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5. 결론

5.1 분석결과의 요약

본 연구는 제92회 아카데미 오스카상을 수상한 한국영화 <기생충>의 일본어 자막과 영어 자막이 고맥락 문화권 언어와 저맥락 문화권 언어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맞춘 자막번역전략을 취하고 있는지, 각 자막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고맥락 문화권과 저맥락 문화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고맥락 문화권 언어는 언어 이외의 정보에 대한 중요도가 높다. 그러므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언어 외적 요소를 중시한다. 따라서 목소리 톤이나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요소에서도 정보를 얻으려 한다. 저맥락 문화권 언어의 커뮤니케이션 형식은 이와 반대로 무엇보다 언어 그 자체에 신뢰를 둔다. 직접적인 표현과 논리적인 사고를 원리로 한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도모한다.

www.kci.go.kr

본 연구는 본론에서 제시한 네 가지 번역전략에 의거하여 일본어와 영어 자막번역을 먼저 거시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본어 자막은 총 1638장면 중 명제 유지 번역(617개, 38%), 삭제(559장면, 34%), 바꾸어 말하기(428장면, 26%), 보충(34장면, 2%) 순으로 전략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어 자막은 일본어 자막과는 달리 바꾸어 말하기(428장면, 43%), 명제유지번역(653장면, 40%), 보충(163장면, 10%), 삭제(114장면, 6.9%) 순으로 전략이 사용되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명제유지번역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자막번역에서 고맥락 및 저맥락 문화권 커뮤니케이션 형식을 띠고 있는 자막번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커뮤니케이션 형태에 따른 세 가지 언어적 특징, 주어, 술어, 독립어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주제중심적 언어인 일본어에서는 주어가 자주 생략이 되는 반면 주어중심적인 언어인 영어에서는 주어가 명기된다. 즉 TT_JPN에서는 ST_KOR에서 제시된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를 볼 수 있었던 반면 TT_ENG에서는 ST_KOR에서 이미 생략이 되었던 주어를 살려 번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둘째, TT_JPN에서는 TT_ENG에서 보기 힘든 술어 생략 형식의 중도종료형 발화를 볼 수 있었다. 일본어는 문장을 완성시키지 않고 조사만 있어도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한 언어인 반면 영어에서 술어 생략이 허용되는 경우는 술어가 반복해서 나올 때일 뿐이다. 셋째, TT_JPN과 TT_ENG 모두 실질적인 발화는 번역된 반면 형식적인 발화의 경우 TT_JPN에서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통 공화에서 청자가 화자에게 맞장구를 치면 화자의 목소리와 겹치는 경우가 많고(水谷[미즈타니] 1988) 자막이 없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생략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2 본 연구의 한계와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같은 한국어 원본이 일본어와 영어에서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었는지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하지만 이하와 같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먼저 분석 대상이 <기생충>이라는 영화 한 편밖에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겠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일본어와 영어 자막에 나타난 다른 점이 본고에서 지적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의 차이에서 비롯된

www.kci.go.kr

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막번역의 사례와 번역가들의 전략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자막번역 한 데이터당 하나의 전략을 선택하는 방법을 취하였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분석 기준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 <기생충>은 한국영화이면서도 보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언어적인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형식의 차이를 보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상기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구가 한영·영한, 한일·일한, 그리고 일본에서의 연구가 영일·일영, 혹은 다른 언어권의 자막번역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본고는 그다지 연구가 되어 오지 않은 한일·한영 자막번역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다양한 장르의 자막 분석을 시도하여 본 연구에서 지적한 언어적 특징에 따라 어떻게 번역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영훈 (2021)「<기생충>에 나타난 감각적 요소와 한국적 맥락」,『문화와 융합』 43(4): 461-479.

김정림 (2015)「자막번역의 제약과 축소 전략 연구」,『통번역학연구』 19(2): 111-134.

박윤철 (2008)「자막번역의 생략과 삭제」,『번역학연구』 9(4): 171-194.

박윤철 (2020)「Cintas & Remael(2007)의 자막 번역 전략에 관한 연구」,『통번역교육연구』 18(4): 151-169.

안미영 (2018)「*The Vegetarian*에서의 명시화 번역전략 연구」,『미래영어영문학회』 23(1): 225-248.

이강선 (2016)「고맥락에서 저맥락으로: 두 권의『채식주의자』」,『겨레어문학』 57: 277-312.

조성은 (2014)「영상번역 연구의 동향과 전망」,『번역학연구』 15(2): 205-224.

홍정민 (2013)「한영 뉴스번역의 영어권 커뮤니케이션 방식 반영 전략」,『응용언어학』 29(1): 307-334.

Diaz-Cintas, Jorge (2010) ‘Subtitling’,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aer

www.kci.go.k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Volume 1),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44-349.

Diaz-Cintas, Jorge and Aline Remael (2007)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Manchester: St. Jerome.

Gottlieb, Henrik (1992) 'Subtitling - A New University Discipline', in Cay Dollerup and Anne Lod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161-170.

Gottlieb, Henrik (1994) 'Subtitling: People translating people', in Cay Dollerup and Anne Loddegaard (eds) *Teaching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2,*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61-274.

Gottlieb, Henrik (2004) 'Language-Political Implications of Subtitling', in Pilar Orero (ed.) *Topics in Audiovisual Transl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83-100.

Hall, Edward T. (1976) *Beyond Culture,* New York: Doubleday.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7)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Routledge.

Lomheim, Sylfest (1999) 'The Writing on the Screen. Subtitling: A Case Study from Norwegian Broadcasting (NRK), Oslo', in Gunilla Anderman and Margaret Rogers (eds) *Word, Text, Translations: Liber Amicorum for Peter Newmark*, Clevenden: Multilingual Matters, 190-207.

Pym, Anthony (2011) 'Translation Research Terms: A Tentative Glossary for Moments of Perplexity and Dispute', in Anthony Pym (ed.) *Translation Research Project 3*, Tarragona: Intercultural Studies Group, 75-110.

Schäffner, Christina and Beate Herting (1992) 'The Revolution of the Magic Lantern: A Cross-cultural Comparison of Translation Strategies', in Mary Snell-Hornby, Franz Pöchhacker, and Klaus Kaindl (eds) *Translation Studies: An Interdiscipline,*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27-35.

Scollon, Ron and Susanne Wong Scollon (1995)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Discourse Approach*, Oxford (UK) and Cambridge (MA): Blackwell.

www.kci.go.kr

池上嘉彦 [Ikegami, Yoshihiko] (1983)『詩学と文化記号論』[*Poetics and Cultural Semiotics*], 東京 [Tokyo]: 筑摩書房 [Chikumashobo].

稲生衣代, 河原清志 [Inou, Kinuyo and Kiyoshi Kawahara] (2010)「英語ニュースの字幕翻訳ストラテジー」[Subtitling Strategies for English News],『英文学思潮』[*Thought Currents in English Literature*] 84: 31-55.

宇佐美まゆみ [Usami, Mayumi] (1995)「談話レベルから見た敬語使用―スピーチレベルシフト生起の条件と機能―」[Conditions for Speech-level Shift Occurrence in Japanese Discourse],『学苑』[*Gakuen*] 662: 27-42.

河合隼雄 [Kawai, Hayao] (1995)『働きざかりの心理学』[*Psychology of Prime Working*], 東京 [Tokyo]: 新潮社 [Shinchosha].

河原清志 [Kawahara, Kiyoshi] (2014)「翻訳ストラテジー論の批判的考察」[Critical Discussion on Translation Strategy Theories],『翻訳研究への招待』[*Invitation to Translation Studies*] 12: 121-140.

篠原有子 [Shinohara, Yuko] (2012)「映画字幕は視聴者の期待にどう応えるか」[How Can Film Subtitles Meet An Audience's Expectations?],『通訳翻訳研究』[*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The Journal of the Japan Association for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2: 209-228.

篠原有子 [Shinohara, Yuko] (2013)「映画『おくりびと』の英語字幕における異文化要素(日本的有標性)の翻訳方略に関する考察」[A Study of Strategies for Translating Culture-Specific Items in the English Subtitles of the Film *Departures*],『翻訳研究への招待』[*Invitation to Translation Studies*] 9: 81-97.

杉戸清樹 [Sugito, Seiju] (1987)「発話のうけつぎ」[Speech Sequences],『談話行動の諸相―座談資料の分析―』[*Aspects of Text and Context: An Analysis of Conversational Texts*], 東京 [Tokyo]: 国立研究所 [The National Language Research Institute], 68-106.

戸田奈津子 [Toda, Natsuko] (1997)『字幕の中に人生』[*Jimaku no Naka ni Jinsei* (A life in Subtitles)], 東京 [Tokyo]: 白水社 [Hakusuisha].

鳥飼玖美子編著 [Torikai, Kumiko (ed.)] (2013)『よくわかる翻訳通訳学』

www.kci.go.kr

[*Yoku Wakaru Hon'yaku-Ts yaku-Gaku* (Easy-to-understand Study of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京都 [Kyoto]: ミネルヴァ書房 [Minerva Shobo].

林伸一 [Hayashi, Shinichi] (2014)「『省略する文化』と『明示する文化』: 日本事情論としての考察」 [Culture of Implicitness and Culture of Explicitness: Another Look at Japan],『山口大学文学会志』[*Journal of the Literary Society of Yamaguchi University*] 64: 123-136.

バーグランド, ジェフ [Berglund, Jeff] (2003)『日本から文化力：異文化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すすめ』 [Nihon kara no Bunkaryoku: Ibunka Communicaion no Susume (Cultural Power from Japan: Recommendations for Cross-Cultural Communication)], 東京 [Tokyo]: 現代書館 [Gendaishokan].

ベイカー, モナ, ガブリエル・サルダーニャ編 [Baker, Mona and Gabriela Saldanha], 藤濤文子監訳 [Fumiko Fujinami (ed.)], (2013) 『翻訳研究のキーワード』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東京 [Tokyo]: 研究社 [Kenkyusha].

水谷信子 [Mizutani, Nobuko] (1980)「外国語の修得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 [Gaikokugo no Shutoku to Communication (Foreign Language Acquisition and Communication)],『言語生活』 [*Gengo Seikatsu*], 344: 28-36.

水谷信子 [Mizutani, Nobuko] (1988)「あいづち論」 [On Aizuchi－Listeners' Response], 『日本語学』[*Nihongogaku*] 7(13): 4-11.

尹盛熙 [Youn, Sunghee] (2021)『ことばの「省略」とは何か』 [*Kotoba no 'Shoryaku' towa Nanika* (What Is 'Ellipsis' in Language?)], 東京 [Tokyo]: 大修館書店 [Taishukan Shoten].

<인터넷 자료>

KBS뉴스 (2020. 1. 7)「봉준호 감독 "자막의 장벽을 뛰어넘으라" 한 까닭은?」, 『KBS뉴스』, 2021년 11월 13일 검색.
www.youtube.com/watch?v=el79U9Wku-w

www.kci.go.kr

Scott, A. O. (2019. 12. 4). 'Best Movies of 2019', *New York Times*, December 4. Available at www.nytimes.com/2019/12/04/movies/best-films.html

宇田川幸洋 [Udagawa, Kouyou] (2020. 10. 4)「意表突く転換の連続　映画『パラサイト 半地下の家族』」[Ihyo Tsuku Tenkan no Renzoku Eiga *Parasite Hanchika no Kazoku*] (A Series of Unexpected Turns of Events, A Film *Parasite*),『日経新聞』[*The Nikkei*], 2021년 11월 13일 검색. www.nikkei.com/article/DGXMZO54210900Z00C20A1000000/

染谷泰正 [Someya, Yasumasa] (2009. 9. 5)「大学における『字幕翻訳』授業のための指導モデル～理論と実践の両面から～」[Proposing a Teaching Model for a College Subtitle Translation Class—Theory and Practice],『日本通訳翻訳学会第10回大会　発表資料』[*10th JAITS Annual Conference*], 2021년 11월 13일 검색. http://someya-net.com/84-Subtitle_TeachingModel/Jimaku_Handout_TsuyakuGakkai09.pdf

<분석 자료>

봉준호 (2020) 『기생충』. 한국: CJ E&M.

ポン・ジュノ [Bong, Joonho] (2020) 『パラサイト　半地下の家族』[*Parasite*]. 日本: VAP Inc., Japan.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f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Style on Subtitling Strategies: Comparison between Japanese and English Subtitles of *Parasite*

Junhee Yoo
(Ewha Womans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translation strategies used in Japanese and English subtitles of the Korean film *Parasite*. Japanese and English each has its own linguistic structures. In Japanese, the dependence on contextual cues is relatively high while in English, the main channel of information transfer is the language itself. Therefore, Japanese culture and English-speaking culture use different strategies based on their communication styles. As a framework of macroscope analysis, this study adopted Ino and Kawahara's (2010) news subtitle strategy classification reviewing the result of analysis by using the concept of high-context and low-context communication of Hall (1976), Scollon and Scollon (1995), and Hayashi (2014).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ree major differences can be seen in Japanese and English subtitles of *Parasite*. Japanese is topic-prominent, incomplete utterance, and backchannel utterance language. On the other hand, English is a subject-prominent, complete utterance, and substantial utterance language. In addition, the Japanese subtitles tend to omit words that audiences can assume through the screen, while English subtitles tend to verbalize words spoken in the film.

Keywords: audiovisual translation, subtitling strategies, communication style, *Parasite*
주제어: 영상번역, 자막번역, 번역전략, 커뮤니케이션 형태, 영화 <기생충>

www.kci.go.kr

유준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박사수료생
yoo.junhee@gmail.com
관심분야: 영상번역, 자막번역, 문화간 커뮤니케이션

논문투고: 2022년 2월 6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2월 24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3월 17일
게재 확정: 2022년 3월 22일

www.kci.go.kr